

##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교회

손 봉 호  
(서울대 교수)

성경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벧전 2: 9~12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혹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공혹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이자리에서 뵈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가지로 저한테 기록을 깨는 강의입니다. 우선 두시간을 강의하라는 이런 요청을 받아 본 일이 없는데, 저는 강의하는데 특히 옛가락처럼 자꾸 늘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두시간을 어떻게 매꿀까하고 오면서 대단히 고민하였습니다. 준비를 많이 할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다른 강의와는 달라서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시간을 매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여기와서 여러분과 같이 찬송을 불러보니까 여러분과 통하는게 있다는 걸 느끼고 그러니 조금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시간 매꾸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제게 강의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이 들어오고, 또는 저는 많은 거절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곳에 가면 강사료를 매우 많이 주는데 여기는 강사료를 주는 대신 돈을 내고 오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우리 당회에서 의논한 결과 우리가 100만원을 주고 강의를 하러 가자. (웃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오늘 100만원을 내고 지금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쫓아 여기에 왔는데, 물론 여러분에 대한 저의 관심은 매우 큼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나 나나 이땅위에서 부

를받은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일해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즐기고 다른 사람처럼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땅 위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사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이 어떤 확신이 있어서, 철학적 확신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전통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가지 결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또 교단어른들로부터 내가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빨리 교단을 떠나달라는 그런 소리도 듣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밀어내지 말라고 다리를 붙잡고 남아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단을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대단히 큼니다. 여러가지 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고려신학교에 근본적인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 전통을 잘 살리면 역시 우리 사회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당장 왜 그러면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지, 엉뚱한 세속대학에서 가르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사명이 그러면 안수를받고 설교를 한 것이지 왜 대학에서 가르치느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아픈데를 긁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길게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가지의 이유 중 하나는, 신학교에 가면 손봉호는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귀국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한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 했는데, 손봉호를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놓아두니까 온갖 소리를 다해서 저걸 입막는 길은 신학교에 넣는 길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이 몇분 계시지만 사실 제가 동정을 조금 합니다. (웃음) 신학교에 들어가면 입을 조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도저히 신학교에 가서 견딜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지르지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다 저처럼 하면 큰일 나죠. 신학교가 존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달

란트를 주시고, 성격도 여러가지로 다른 성격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참고 교육을 시키는 분이 계셔서 신학교는 존속하고, 또 저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바깥에서 빙빙 돌아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젊은 학생들 가운데 나중에 커서 손봉호처럼 되겠다하면 저는 한사코 말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한국에 그저 이런 사람은 한둘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웃음)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그런 달란트를 받고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시간이 많으니까 가슴을 터놓고 말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Howard A. Snyder 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사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이 교회를 새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에 비교했습니다. 그분의 책이 "The problem of Wineskin"이란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포도주를 담는 "새 포도는 새부대"의 성경구절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부대에다 비유했는데 이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분이 교회를 부대에다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있고 그 속에는 포도주가 있고 그 바깥에는 세상이 있고, 그래서 술은 복음에다 비유하고 술이 이 부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세상과 경계를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교회를 부대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는 ekklesia란 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교회는 바깥에 나가 있어서는 교회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포도주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초대교회에 신학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신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생긴 여러가지 이유 중에 서너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회랍철학자들이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은 형편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믿는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할 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가 없었으면 Apologia가 생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두번째는 이단이 생기게 시작했습니다. 이단이 왜 생

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철학이나 종교사상이 없으면 이단이 안 생길텐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의 여러가지 사상이 교회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이단사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이단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기독교에서 반드시 이런것을 믿어야 되지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그런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신학이 생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기독교란 이런이런 것을 믿는 것이다, 신앙고백 그것을 형성하기 위하여 또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여러가지 첨가도 해 주실 것이고 비판도 해 주실 것이지만,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적어도 신학이 생겨나는 과정을 서너가지 이유 때문에 신학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른 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신문을 든다는것은 교회나 교역자의 양면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수교회, 자유주의 교회, 이렇게 편이상 교회를 나누는데, 자유주의 교회와 보수주의 교회의 차이가 어떻게냐 우리가 여러가지로 비유할 수 있으나 세상과 복음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자유주의 교회는 신문을 매우 강조하고 보수교회는 성경을 매우 강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해서 자유주의 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수주의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파수하는데 너무 관심이 크다보니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달에 너무 관심을 쏟아 버리니 전달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듣도록 전달해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 복음 그 자체는 약화시키는 그것이 자유주의의 큰 약점입니다. 보수교회는 진리파수, 진리파수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해서 세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만 전달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상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교회의 구실을 잘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전달도 잘해야되고, 복음핵심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상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나 세계의 역사상 대부분의 교회가 항상 두개 중의 어느 하나를 좀더, 다른 어느것보다 강조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둘의 균형이 안맞는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세상

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해 버리면 언어가 안통하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을 쪽 읽어보면(신학교수님 앞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겁이 납니다. 신학이라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신학교 3년밖에 공부 안했는데 교수님 앞에 서가지고,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써서(웃음) 상당히 겁이 나긴 합니다. 저 다름대로 말씀을 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알아 듣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말을 더듬으신다.” 성령이 말 할 줄 몰라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더듬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반사하는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면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감회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멍청하게 듣고 앉아가지고 전달이 하나도 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교육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올바른 소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건 무슨 강의가 됩니까? 대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교역자에 대한 가장 큰 불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불평. 저가 장로들, 기독교실업인에게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마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수십년만어 장로가 된 장로들의 제일 큰 불만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제일 자주 들리는 불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심오한 진리를 그대로 표현했다면 구약 사람이 알아 듣습니까? 신약 사람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몇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삼위일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기본적인 진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지식으로 도저히 표현 못하는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가지 성품, 삼위일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괜히 안다고 그렇게 해보아야 알아들도록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하겠습니다. 화란에 제가 좋아하는 사우드마라는 철학교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와서 철학교수가 되었는데 그분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화란 자유대학의 헤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사색적인, 스피라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아주 독

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색적인 이론을 가지고 삼위일체는 삼체일위라하는 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드마라는 교수가 학교에 다닐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이 어찌 그리 사색적이나? 그런데 하루는 시험을 칠때 우리나라처럼 쓰지 않고 구술로 시험을 보는데 조직 신학 시험을 보러 들어가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사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알면서 불만이 많아서 성경이 그렇게 사색적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데... 속으로 생각하고는 '모르겠습니다'하고 말을 하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후에 다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나? '모르겠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늘 다른 과목에서는 제일 잘하는 학생인데 두번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침 프로임 웨이라고 북쪽의 국립대학에서 신학과에서 신학생에 대한 현상 논문을 모집했는데 이 사우드마 학생이 논문을 써가지고 일등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또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그때 교수도 저 녀석이 상을 받을 녀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삼위일체가 무엇이나 물으면 틀림없이 모르겠습니다 할것이고 그러면 또 떨어질 것이니까. 아예 질문을 하기를 자네가 이번에 상을 받은 학생이나? 그렇습니다. '합격했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여러분도 이것을 배워가지고 조직신학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좀 독특한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모두 그런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계시하였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계시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시하셨을때는 구약시대 사람의 의식수준에 맞춰서 계시하셨고, 신약시대의 계시는 신약시대 사람들의 의식수준에 맞도록 계시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일종의 Communication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었습니까. 비유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설교라는 것은 쉽게 해야 설교지, 교인이 알아 들도록 해야 설교지, 교인이 알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 신비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롬 10장에 보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지 않느냐? 듣지도 않고 어찌 믿느냐 우리 기독교는 전달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Communication의 내용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선불교 같은 것은 그것이 필요없지요. 필요없습니다. 서울에서

몇년전에 선불교 세계 논문 발표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가 나가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5분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팡이로 세번 툭툭 치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웃음) 이것이 최고의 논문 발표였습니다. 선불교는 언어라는 것을 나쁜 것이다. '명파 명은 비상명이다.' 우리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여하튼 이름을 붙인다는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달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가지 예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 교회에서 졸업예배를 드렸는데 1부 시간에 주일학교 졸업예배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날 아침에는 유치부에서 부터 대학부학생까지 앉아 있고 또 일반성도들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제가 설교를 해야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지 꽤 고민이 되었습니다. 설교는 1, 2부 같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1부에는 주일학생이 앉아 있고 2부에는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설교를 같이 준비해 가지고 1부예배때 어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듣도록 설교를 할 도리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 유치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아주 가능한한 유치부는 안되겠고, 적어도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은 알아 들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갈때 인사를 드리니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웃음) 평소에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설교를 잘했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때까지 설교를 헛했구나. 결국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어야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데 괜히 교인들이 굉장한줄 알고 설교를 높여서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인들을 너무 과대평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과소평가 해도 실례가 되지만, 과대평가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전달에 대하여 강조해서 자유주의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이 있어야 전달을 하지 내용이 없으면 전달하나마나죠.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수준에 맞게 너무 낮추다가 마침내 복음 그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알맹이가 없어지고, 설교에 알맹이가 없어지고, 교회 그 자체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세상 한 가운데서 복음을 담고 있는 가족부대라는 그런 면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한국교회의 문화적 상황과 교회라는 제목을 주었으니 문화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문화

라는 것을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뭔가하면 자연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인간 집단이 생물학적인 본능을 초월하여 의식적으로 이룩하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로 문화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여러가지 본능을 타고 났습니다. 그러나 본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행위는 문화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의하여 행동해서 낳아진 산물은 문화적 산물이 아닙니다. 가령 자식을 낳는게 문화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문화적 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문화적 산물이라하면 생물학적 본능을 초월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것, 즉 자연에 주어진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이룩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돌맹이를 찌는데 그 돌맹이가 빙빙굴러서 밑에 다른 돌맹이를 치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아주 예쁜 조각품을 우연하게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 산물이 아닌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 산물인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작품이라도 내가 망치를 가지고 이런것을 만들어야지 해서 자연적 산물보다 훨씬 보기 싫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이것은 문화적 산물인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행동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화라는 말을 쓸때 한 사람의 행동을 문화적 행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집단적인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조각품을 만들더라도 그 조각품에는 그 개인의 생각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시대의 미적 감각이라든가 하는것이 반영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대개 집단적인 행위 또는 그 영향의 결과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만이 문화를 창조합니다. 동물은 문화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창조란 말을 썼을때만은 창조란 말은 과거에 없었던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인간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모양을 바꿈으로써 전에 없던것을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은 대개 우리인간이 문화를 창조하지만은 동시에 인간은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보통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과 문화는 요즈음 흔히 쓰는 변증법적 관계, 변증법이란 말은 남용하는것 같은데,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가 인간을 또 창조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화를 초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원시 사회에서 사람이 자연적 환경에서 삽니다. 일어나서 잘때까지 주로 접하는것은 자연입니다. 인간이 아무래도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것은 오늘날

보다는 약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일어나서 잘때까지 사실상 듣고 보고하는것이 거의다 문화인 것입니다. 원시인들은 자연적 환경에서 살았고 현대인은 문화적 환경에서 산다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로 부터 받는 영향도 자연적인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것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때도 이미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그것을 잊어버린다면은 문화는 창조되지가 않습니다. 문화는 형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은 아마도 기억하는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옛날 내가 데리고 있던 조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은 겨울날 따뜻한 양지에 사과랑 떡이랑을 창문옆에 놓아 두었는데 쥐가 그것을 보고 먹으려고 봤는데 유리가 거기에 있으므로 아무리해도 안되니 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다가 뒤를 보니 사과와 떡이있어 다시와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놈이 조금 가다가 보니 떡이 있거든 와서 다시 먹으려 하니 안된다 말아야. 그러다 다시 돌아가다가 보니 떡이 있던 말아야. 그 사이에 잊어버린다는 것이예요.

사고가 가능한 것은 기억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떤점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일 먼저 착안한 철학자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머리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기억이라는 것이 바깥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책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 한 사람이 처음 부터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 사람이 그것을 보고, 본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사람은 또 다른 모양을 만들고 만들고 해서 이렇게 축적이 되어 이런 모양의 책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사람으로서 나온게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 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만 두뇌에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속에 기억되고 또 글을 씌으로써 종이에 기억이 되고 요즈음에는 녹음을 함으로 테이프에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함으로 이런 것을 합쳐서 문화로 문화적인 방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 것이 입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작

품을 통하여 나와서 막 정신 없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거기에 다 자연의 영향도 또 있습니다. 더운 지역의 사람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또 자연의 영향도 있으니 더욱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이 없어지고 항상 새로운 것이 나와지면 생물학적 동일한 문화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축적이 되어 그 위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드니까 문화라는 것이 다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형마다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아무래도 뒤의 문화를 앞의 문화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전진해 나가니까 과거의 문화보다 미래의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유산을 잘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기독교의 영향이 대단히 큼니다. 이런 문화관이 나온 것도,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희랍 사람들은 그리고 불교를 믿는 동양 사람들은 역사는 돌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고돈다는 것은 역사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위 순환적 역사관. 니체같은 사람은 심지어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간들간들하는 것도 똑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회귀를 믿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회귀를 믿어요. 자꾸만 돌고도는 것을 믿습니다. 돌고돌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순환적 역사관에는 Progress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Prograsio가 가능하다. 즉 진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진보란 축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소위 진보사관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창조이론부터 마지막 심판까지의 선적인 발전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문화의 발전은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가 문화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속해서 상호영향을 끼치므로 문화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낙관주의 역사관인데 19세기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하튼 좋아 진다는 것은 가치평가의 문제이고 축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기초해 가지고 나 빠지는 방향으로 가든지 좋은 방향으로 가든지 축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이 세상문화환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초월적인 가치 즉 성경의 가치에 의하여 살고 움직여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하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 사람들과 이야

기를 하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차피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과 일본의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언어도 다르고 행동구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요렇게 안수를 하고 일본사람들은 이렇게하고 한국사람들은 이렇게하고 다 다르지요.

물론 동일한 복음을 공유하고 있기에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닌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위에 의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받고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할때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때 사람이 비판적이지 못하는가하면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모를 때 비판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알때 그 상황을 비판하지 그것을 모르면 비판적이지 못해요. 오히려 문화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문화에 대하여 무비판적 입니다. 무비판적이니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번째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매우 전방진 분석입니다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특히 한국교회와 관계해서 특색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국 문화도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문화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화란 말은 요즘은 교회에서는 특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속화란 말은 서양에서 소위 80년 전쟁이 난 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하면 80년 전쟁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나 카톨릭의 군주와 군주들 사이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하면 스웨덴의 왕이 상당히 중요한 승리를 해서 스웨덴이 아닌 남쪽에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평화조약때 어떻게 이땅을 분할 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연구하다가 스웨덴 왕이 저 남쪽의 땅을 차지했었는데 그것을 양보하고 그만큼 땅을 북쪽에다 주자 그만한 땅

을 어떻게 주느냐 그 방법으로 이때까지 카톨릭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이 스웨덴 땅(개신교왕)에게 주는것으로 그 해결을 했습니다. 스웨덴 왕은 그 만한 땅을 가지면 되니까 저 남쪽의 땅보다 자기 나라와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세속화입니다. 이제까지 거룩한 카톨릭의 소유인 땅이 세속군주에게 준다는 의미였다. 그 땅 자체가 교회의 소유였으니 신성했다. 그러나 이제는 군주에게 주어졌으니 신성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세속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은 이 세속화란 단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땅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독일에서는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이 이용되어서 이때까지 신적이라는 것이 신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내는것이라는 의미에서 세속화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옳은 것입니다. 비판적인 것이 되는것입니다. 이와 관계해서 또 한 마디하면 영동교회에 와 보시면 하나 느끼실 것입니다. 신을 신고 강대상에 덜렁덜렁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단에 올라갈때 신을 벗으려고 하면 '목사님 신을 신어도 됩니다'라고 하여 신을 신고 올라 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일종의 세속화죠. 강대상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세가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을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니까 거룩한 지역이다. 그 정신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가능하면 기독교인이 생각할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은 거룩히 여기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전 다른 교회에서 신을 벗으면 저는 거리낌 없이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신을 신는 이유는 뭔가? 강단이 구약의 지성소처럼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안에 가령 담배피우는 사람이 물론 교회안에서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옳지 않지만 교회 바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덜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안에서는 사진도 찍지마라 그럴때 바깥에서는 사진 찍어도 괜찮지만 예배당안에서는 사진 찍지 말라. 예배 드릴때 사진 찍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예배당 안은 거룩하다 그러면 예배당 안이 거룩하지만 더욱 거룩한 곳은 강대상 위는 더 거룩하다. 그럴 때 사람들 생각에 강대상 위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예배당에서는 조금 조심하고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도되고 욕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이곳은 좀 덜 거룩하고 이곳은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므로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이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살고 교회에 갈 때는 좀 단정히 하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부들 부들 떨고 내려가면 좀 덜 떨어도 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강대상을 세속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처음 제가 귀국해서 합동측 교회에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 마침 그해에 여류어린이 성경학교 제목이 "성전을 사랑하자" 제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강의할 때 성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란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성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막이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니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가 있어야하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양을 잡아 바치고, 그게 성전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성전이란 말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하여서 그다음에 이 말이 총회에 올라가 이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세속화해야 할 것은 세속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속화해야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하지 않은 것을 신성화시키는 것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신성한 것이 약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상징적인 단어이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연보를 올려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에 성전을 지을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으며 솔로몬이 얼마나 회생을 했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성전을 위해서 바쳤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을 짓기 위해 그러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해야죠. 그러나 가르칠 것은 바로 가르쳐야죠.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바쳐서 예배당을 지어야죠.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아무 구별도 해 주지 않고 마치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듯이 그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교인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못 아는 것입니다. 예배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말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관하여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아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하여 달라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6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단을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 다윗은 처소를 위해서 기도했고 솔로몬은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뭘지는 희랍어 전문인은 아니지만 F.F. Bruce 주석을 보니깐 의도한 처소는 콘센트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래요. 여기서 집이란 말은 돌로서 만든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과 솔로몬이 지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하였느냐는 질문에 땅굴에서 예배드리고, 개개인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가 깨끗했는데 콘스탄티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배당을 짓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대하여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세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아무리 교회가 크고 번쩍번쩍 빛이나도 그 속에서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가치의 전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속화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말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세속화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참 많습시다.

그러니 오늘날 문화가 세속화 되었다고 할 때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나 하니 문화 전체가 내세에 대해서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는 그래도 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가치에 대하여 상당한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문화는 점점 초월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적인 것을 무시하고 신비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속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도 예를들어서 태국이나 인도나 버어마등도 세속화가 좀 덜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적인 종교라도 초월적인 신비적인 것, 신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서방나라는 초월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느냐? 매우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속화가 빠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의 심성을 이루고 있는 무속종교를 보면은 매우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로서 신비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세적인 것이 전혀없고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합니다. 주로 현세적인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무속종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도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에 대하여 물으니까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귀신에 대하여 어떻게 아느냐? 이것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종교가 상당히 현세적인 그런 종교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과거의 식민지시대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속에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의 글들을 보면 우리 조상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식민지주의라는 것은 역시 우리 한국 사람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까지 중국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교만을 이번 에 근본적으로 깨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북음전파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덕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전통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한국 문화의 특색은 철저하게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주의라는 것은 거창한 철학적 유물론이 아니라 아주 시시한 가치관 즉 돈 중심 배금사상입니다. 우리나라 물질주의는 아마 세계 전체의 첫째가 아니면 둘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 만큼 돈 좋아하는 국민은 좀 드물지 않겠나 우리 생각해 서양 사람을 물질적이고 동양 사람을 정신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가치는 서양 사람이 훨씬 더욱 강조합니다. 하여튼 세계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백성은 한국사람·일본사람·대만사람·홍콩사람·싱가폴사람, 소위 아시아의 다섯마린가 네마리의 용이라는 요사람들이 지금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돈이라 하면 사죽을 못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과거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앞에말한 세속화 현상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하는 이유도 바로이 돈을 좋아하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을 성실하다고 칭찬하는데 왜 부지런합니까? 돈 안주어 보세요. 부지런한가? (웃음) 여하튼 돈 때문에 부지런한 것입니다. 괜히 한국에 대하여 신화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무너지는 때에는 이거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유교권내에는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교권 내에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가난합니다. 북한·중공·베트남 유교권 내에서 자본



주의 하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권과는 다른 철저히 현실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째로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향락산업에 투자된 돈이 4조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향락업소가 얼마나 지금 우호죽순처럼 쏟아나는지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음란 비디오 · 음란 잡지 · 음란 소설 · 영화 · 퇴폐업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신매매까지 나오게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가장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인신매매라고 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향락 업소는 많고 고객은 여자를 찾고 여자는 없고,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고, 그러니 생사람 잡아서 거기에 집어 넣는 돈에 눈이 뒤집어졌, 향락에 눈이 뒤집어졌 그런 국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즐기자는 것 아닙니까? 초월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느냐? 즐기 위해서가 아니까, 그것 외에도 다른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고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우리에게 두드러진 경향이 평등사상입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시되는 단순히 교수라고해서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계급이 높다고 해서 계급높은 사람의 말을 듣는 시대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수와 학생, 공권력, 노사, 부부, 모든 관계가 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권위주의가 그동안의 비도덕적 정권과 연결되어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주의는 항상 부패할 수 있고 또한 그 결과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 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 사고와 사회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인공적인 수단입니다. 인간의 이기주의는 상상력에 의해서 예측되는 수요까지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이 와서 쪼아먹고 그러나 사람은 이만큼먹고 나머지는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속에 넣어 둡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고양이한테 팔아서 돈을 받아 은행에 저축했다가 내일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안그러면 소금에 저려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는 생존 경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우리는 보통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그러니다만은 사실은 인간을 자연상태에 그대로 둔다면 아마 인간의 생존 약육강식은 훨씬 더 심할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혹은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정도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세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예의범절이고 두번째는 도덕이고, 세번째는 법률인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약육강식은 조금 면하자, 또 공자 같은 사람은 예의가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너무 약하고 법률은 비인간적입니다. 법률은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간에 타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란 것은 사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수를 보고 국회가 어느정도 유능한 국회였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사회전반적으로 보면 국회가 법을 안 만들면 안 만들수록 좋은 사회였습니다. 법률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됩니다. 그리고 법률을 시행하는 기관에 힘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힘이 커지면 반드시 부패가 생깁니다. 몇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에 가면 우리 교포들이 사는것을 보면 대개 부부가 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느냐하면 첫째, 집값을 내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면 당장 집을 삽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집값을 한꺼번에 내는것이 아니고 대개 죽을 때까지 돈을 납니다. 그래서 죽을때쯤이면 자기집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입니다. 미국에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에는 자동차가 다 있어야 하니까 부부가 있으니 자동차는 두대가 필요합니다. 두대의 보험료를 벌려고 하니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 보험료가 비싸냐? 그 이유는 미국에는 가명 교통사고가 나면 당사자끼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변호사란 사람은 실제로 자동차 고치는데 100\$이 들면 500\$ 받아 내는게 변호사입니다. 안그러면 변호사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나 사고 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그 사람에게 100\$ 받아서 고치느니 차라리 변호사를 고용해서 500\$ 받는것이 훨씬 득이되는 것입니다. 500\$받아서 변호사 200\$먹고, 자기 300\$받아서 100\$ 고치면 200\$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변호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견딜 수가 있습니까? 100\$사고에 500\$ 지불하니 보험회사는 견딜수가 없고, 그러니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높이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병원에 들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환자가 죽어버리면 그 가

죽어 의사가 잘못해서 죽었다 하는 말프락티스(Malpartis)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지면은 의사는 평생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는 모두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한번지면 그 사람이 한평생을 다 책임져 주어야 하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의사가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어야 하는데 의사가 무슨 돈으로 내겠습니까? 환자에게 받는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약순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망해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토지 공개념을 시도하려 합니다. 저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토지 공개념이 시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땅을 누가 사용하느냐를 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값은 굉장히 싸조 공개념이 돼버리면, 그러나 누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인가? 서로서로 땅을 쓰겠다는 사람은 많고 땅은 제한되어있고 결정은 관에서 한다면 관의힘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제도든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은 반드시 부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잘못되었다면 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당국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욕을 하는데 당국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말은 앞으로 잘못되었을 때 당국이 책임지라는 말이고, 당국이 책임을 지라는 말은 당국이 감독을 하라는 말이고, 감독을 하라는 말은 권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힘없이 어찌 감독을 합니까? 당국에다 힘을 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하나 장점을 들라면 힘을 분산시키므로 부패를 줄이는 것입니다. 힘이 집중되어 가지고 부패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남용할 유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 액튼이란 사람이 "모든 권력을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것을 그는 부패의 원칙이라고 했다.

과학철학에서 이론, 확실하지 않는것, 원칙 이렇게 나누는데, 이론은 어느정도 확실하는 것을 말하고, 모든 근거는 여기에 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이것을 원칙이라고 말한 것은 상당히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려면 예의 가지고 안되고 법률가지고도 부작용이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 도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이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은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도덕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러기에 이것을 인간적이고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이 도덕적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회는 좋은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래도 마음속에 경찰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police with in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 경찰이 있으면 그것은 법이되고 마음속에 경찰이 있으면 이것은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경찰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나쁜 짓을 할려고 할 때 야! 이놈 하게 되겠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럴수 있는 나고 우리의 마음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세속화되면 마음속의 경찰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우리 더 우리문화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만하고 이런 문화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냐를 살펴봅시다.

우선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자랐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화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한국 세속화에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소금과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란 것은 주위사회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홀드 니버가 칼빈주의의 문화관에서 문화를 개혁하는 교회를 칼빈주의의 문화관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하튼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방이 두방이 있는데 한방은 굉장히 덥고, 한방은 찬데 문을 열어 버리면 더운방의 공기가 찬방에 가서 양쪽의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러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엔트로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세속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결국 사회를 끌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남·여의 그 엄청난 차이를 고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기여하였습니까? 그래서 여학교를 먼저 세우고 그 시대의 전도효과를 보면 남학교를 먼저 세워야지 여학교를 먼저 세우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구분을 없애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맹의 퇴치하

는데 미신을 퇴치하는데, 공헌하였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를 막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술을 못마시게 하고 축첩을 못가지게 하는것……. 그때 교회는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고 사회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사회쪽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회에서 보았을때 교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연보를 많이 하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집사시키고 교회장로시키고 그러니 부동산 투자 안하던 교인들이 불매에 야! 부동산 투기나도 해야지 하는 유혹이 안생기겠습니까? 탈세를 엄청나게 해서 연보를 많이 내면 일으켜 세워 칭찬하고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탈세할 유혹을 안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국기독교가 비판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기독교는 기독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 사고 방식이 들어와서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교회의 교인이 많으면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연보액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더 크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듯이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을 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당 밑에 사는 교인집에 심방가서 교인을 끌어오고 교회차를 타고 교인을 끌어 모으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뻔히 그것이 나쁜짓인줄 알면서도 십일조한 교인 이름을 다쓰고 교회에 광고를 하고 아마 양심에는 약간의 가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하면 연보액수가 주니 할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세속화과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은 저희 교회에서 연보패를 두고 연보를 하자는 안건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와 장로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보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제가 “억지로하는 그 따위 연보, 줄어들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보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바치고 싶어서 내는 그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런 쓸데 없는 연보 거두지 맙시다” 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보가 이래서 안되는데 연보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요인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순서에는 반드시 연보시간이 있는데 연보시간이 없으니 이 예배는 올바른 예

배가 아니다. 어디에서 피상한 신학을 들고와서 말합니다. (웃음) 그런데 강남지역에서 우리교회의 연보가 다른 교회의 평균 연보보다 많았습니다. 이름을 밝혔습니까? 십일조를 내라고 강조를 합니까? 1년에 딱한번 헌금설교를 한다고 약속을 저희 목사님과 했는데 그것도 연보 많이 한다고 축복 많이 받는 줄 아느냐는 설교입니다. (웃음) 연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연보는 틀림없이 나옵니다.

올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보를 많이 내지 않는 것이지 자기가 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연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데 조심해야지 거두는데 급급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에게 여러분 내기 싫은 연보를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도 손해보고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낼수 있는 액수만 내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결정해서 누가 연보를 내는가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누가 십일조를 하는지 안하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원칙을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하든지 교인들은 아! 목사님이 날 연보지게 낸다고 저런소리를 하시는구나 하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는 장로나 집사에게 기증을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 누가 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틀림없이 나쁜점이 있습니다. 성공철학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기독교적인 성공철학, 눈에 보이는 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 교회는 성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잃었고 우리가 짹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하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서양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지만은 돈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자에게 당신 왜 그렇게 돈을 벌니까? 하고 물어 보세요. 그러면 돈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것은 돈 버는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좋은일 많이 할려고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대개 좋은일 하기전에 다 세상을 떠서 그게 문제입니다. (웃음) 부자들은 두번째 말은 귀에 안들어 오는가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올바르게 쓰십시오 하는 말은 귀에 안들어오고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 뿐입니다. 교인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도 참 안되기는 안됩니다. 부자라고 하는것은 문제이긴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자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을 큰 축복으로 아세요. (웃음)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두려면 물질과 거리를 두면 들수록 권위가 쉽니다. 교회의 연보에 대하여 교역자는 관심을 안 쓸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감독자와 관리자를 두어 연보를 유익하게 쓰도록 하고 교역자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교역자는 연보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교역자가 제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속에 들어가서 아웅다웅해서는 좋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끝까지 돈에 대해서 고수해야지 한번 돈 때문에 양보를 하면 그 목회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딩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설계해서 착공식하고 사무실 임대를 미리하여 임대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니 돈이 얼마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후 교회가 그 빌딩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7억을 받고 팔았는데 세무서에는 4억을 받고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의논하여 이런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교회 대학생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내가 교회가 아닌데 왜 강의를 하느냐. 너도 그만 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가더니 한달이 안되어서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에게 와서 장로님 제가 요즘 개척교회를 하기에 고생이 많습니까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산게 아닙니까? 돈처럼 시시한 것에 여러분의 권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어느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대개 원고 받으려면 전화를 몇번하고 여러번 부탁을 해야 원고 하나를 써줄까 말까인데 어느 회사에서 청탁자가 왔는데 원고지 12장을 쓰면 2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한 장에 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한통 오지 않는 것입니다. 속으로 와! "이녀석들이 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구나 이제와서 벌어도 써주지 않을 것이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신사적으로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끝까지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상한 하나님의 소명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돈에 팔아야 합니까? 차라리 땅을 파고 농사를 지었으면 지었지 이렇게 말하면 농부는 우린 뭐 시시한 일만다 하느냐(웃음) 향의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제일 무서운 암은 여자와 돈입니다. 여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로부터 두가지를 배웠습니다. 남자가 제일 비겁해지는 방법이

색과 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대의 명분 때문이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당신 내고 싶으면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라 내가 돈내어라고 하는 것 아니잖느냐? 여러분이 죄인처럼 빌지 마십시오. 괜히 하나님 사업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물질주의에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렸지만 스나이드씨가 얼마전에 앞으로 50년동안 세계 교회의 10가지 동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Communit of minister 평신도와 교역자와의 구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스나이드씨가 앞으로 50년동안 세계 교회의 동향 10가지를 이야기한 것>

1. From regional churches to a world church.
2. From scattered growth to broad revival.
3. From Communist china to Christian China.
4. From institutional religion to kingdom theology.
5. From clergy/ laity to community of ministers.
6. From male leadership to male/female partnership
7. From secularization to religious relativism.
8. From nuclear families to family diversity.
9. From church/ state separation to christian political activism.
10. From safe plant to threatened plant.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교회에서 거짓권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안수를 받았다는 자체가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마치 단순히 내가 교수니까 내 말을 들으라 할때 학생이 듣지 않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오늘날 그런 권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책 때문에 권위가 생긴다는 것은 끝났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에 의한 권위는 있을 수 있으나 내용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교역자의 참권위는 말씀의 권위요. 그 다음은 생활의 경건. 이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를 가져오지 안수를 받았기에 권위가 온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화함으로 교인들이 두려워 할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좀 최종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무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무당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나하면 목사는 존경하지 않으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당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 서울의 어느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신을 많이 믿고 불교를 신뢰했습니다. 서울 주위의 모든 절에 산테리아는 거의 자기 돈으로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절을 치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또 이상하게 당신 예수를 안 믿으면 무당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웃음)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면서도 무당이 된다고 하니까 혼비백산을 한 것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당에 대하여 겁은 내되 좋아하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연예인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 가서 날 무당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연예인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웃음) 이것이 바로 무당입니다. 목사를 마음 속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를 두려워만 할 줄 알고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하면 벌받는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속으로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당아닙니까? 목사를 진정 존경하면 우리 아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존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목사님의 책임이 많습니다. 영적 권위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가 권위로 행세해야지 교회가 자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더러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디가라'고 지시하는 목사가 신령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웃음) 이런 것은 교육 전문가에게 가서 충고를 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걸러먹었다고 당장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건건 교역자에 배어 달리는 삶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큰 문제입니다. 어떤 교역자는 또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사사건건 배어달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가 좀 중요하구나 사실은 훌륭한 교역자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신은 빠지는 교역자가 좋은 교역자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교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인과 그리스도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도록 하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신은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가운데 서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한다는 것은 카톨릭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평등에도 교회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종교가 아닙니까? 남녀평등, 노사구별을 철폐하려고 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이는데도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구제사업을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평균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인 부자에게 잘

가르쳐서 사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 올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아와 과부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장애자에 대하여 동정을 할 줄 모르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사실 장애자를 보면 겁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것은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장애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애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졌고 당회에서 호응을 해서 1억이상 장애자를 위해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성경지식으로만, 기도로만…… 강조했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느냐? 그저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신독이를 제일 강조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울사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바울 서신에는 반드시 '그러므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삶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믿음만 강조하고 따라서 생활은 개차만으로 해도 된다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우리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창한 문자로 선지자적인 비판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비판주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들은 모두 비판주의자였습니다. 외치라—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다 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가 외친 사명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다 망한다고 외치라 세상에 그렇게 가망없는 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는 외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망하였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사회가 잘될 것이라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가능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해야지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서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자유주의자와 칼빈주의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사회운동 선한 일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교회의 지도자는 좁은 의미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말고 도덕적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좁은 의미로 신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에 의하여 인격이 바꾸어져되고 성령에 의해서 감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세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성령세례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어느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오순절 사마리아전도 혹은 우리나라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성령의 세례는 헛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화가 반드시 같이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비도덕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반드시 성화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특히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분이니 제일 먼저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것, 조금이라도 비겁한 것이 있는가를 들여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분석이라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정신분석이 필요합니다. 엄격하게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작은 자동차를 몰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동차 중에 제일 큰 차에다 안테나를 두 개나 세우고 지나가다가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앞에 서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손박사님 참 미안합니다. 제가 이 차를 안탈려고 거절을 했는데 어느 교인이 기어코 타고다니라해서 할 수 없이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 목사님 저 그런 핑계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치고 그런 핑계 안대는 목사님 못 봤습니다. 좋은 차 몰고다니는 목사님치고, 아니 나는 거절했는데 교인들이 억지로 맡겨서 타고 다닌다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 차라리 내가 이것은 타고 싶어서 탄다고 하면 되지 그때위 거짓말이 어디있습니까? 난 인간적으로 분피를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 이것 좀 타고 싶다. 번쩍번쩍하는 차 타고 다니니깐 좋다. 그래야지! 우리예수 믿는 사람 솔직합시다. 나 그런것 용

서못하는 것 아니에요(웃음). 나도 그런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고 싶으나 가능한 적게 타시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하고 훨씬 낫지요(웃음). 과외수업에 대해서 저는 늘 반대를 해 왔어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계층 간의 유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과외수업을 하면 가난한 사람은 대학에 못들어가고 부자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가난이 세습되므로 저는 과외수업을 반대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어느날 제 자신을 정신분석을 해 보았어요.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나는 우리집 아이에게 영어라도 가르칠 수가 있단말이요, 이것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느냐 생각 합니다.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과외수업을 거부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동기에 그런것이 들어있지 않나 한번 분석을 해 보았어요. 정말 그런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을 괜히 미사여구로 자꾸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작고하신 윤봉기 목사님 밑에서 예수를 믿었고 자란 사람인데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대단히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연히 한국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 '사과문' 해 가지고 목사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총회장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신문에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사님 앞에서 꼼짝못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권위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손해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가끔 손해를 보고 다른면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감정적으로는 손해를 못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연보를 100만원을 내고 천만원을 내면 내었지 교회 앞자리에는 못 앉겠다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앉기에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다른 사람은 불편한 자리에 가라. 이것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앉는 것이 제일 불안한 것인가? 거기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웃음) 자기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 긴의자가 있으면 딱와서 제일 한쪽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고생을 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서 자신이 가운데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아주 이기적인 것입니다. 한 사회의 도덕성이 유지되면 교육으로도 안되고 정부가 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사회윤리

를 책임집니까? 우리가 제일 큰 착각이 무엇인가하면 자유주의자들이 특별히 정부가 도덕운동을 해 주길 바라고 정치가가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부뚜막에 앉아 있는 고기를 고양이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치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찌 도덕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절대로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막스베버가 말하기를 “거룩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라”고 썼습니다. 정치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가들이 사회윤리를 책임지고 있겠습니까? 몇년전에 5공화국이 시작될 때 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결하는 정화위원이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회운동으로서 정화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자문위원으로 저를 오라고 해서 가서 아주 강력하게 정화위원회 만드는 것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더니 그 다음부터 오지말라고 그러니까. (웃음) 그 다음에 또 한번은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의는, 도덕에 대해 강의는 하기는 하되 그러나 정화위원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또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 “여러분 제가 정화위원회에서 와서 강의하라고 해서 강의는 하지만 이 위원회라는 없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이 사회윤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교육을 아시죠 돈 봉투가 왔다갔다하여 아이들이 지금 선생에 대해 어느정도 불신하는가 하면 선생님도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위선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아이가 어머니날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사회어른에게도 실망했고, 선생님에게도 실망했고, 교회어른에게도 실망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어머니날이니까 아버지에게도 실망했어요 고맙은 쪽뻬어요. (웃음) 교육이 지금 엉망입니다. 교육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가정이 어떠습니까? 우리나라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정이 우리 자녀를 도덕적으로 교육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여튼 일류대학만 들어가면 무슨 나쁜짓을 해도 다 용서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가정에 어떻게 자녀교육이 됩니까? 오늘날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책임은 교회가 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책임을 안지면 우리사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윤리적인 행동

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은혜로만 구원에 이룬다는 것을 또한 선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은혜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의무다. 이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수행하고 교회에 가르치고 교회가 우선 그 일에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해놓고 무슨 일을, 자유주의가 어떠한 성명서를 내 놓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첫째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무너져가는 가장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지요 교회가 여기에 실패해 놓고는 엉뚱한 것을 해봐야 그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기관에 맡기고 우리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받아 보셨겠습니까만 제가 윤리 실천운동을 처음에 매우 강조했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다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좀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15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매달 News Letter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 권장을 하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선한 압력을 조금씩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량도서에 대하여 정중한 태도로 편지를 썼어요. 이러한 책을 내어서 되겠습니까? 상당한 효과를 보았어요. 사회 부도덕에 대해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중한 편지를 쓰서 우리는 이러한 단체고 이러 이러한 회원을 가진 단체인데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권고를 하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것을 염려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박수)